

순천 신대지구 외국인학교 설립 가시화

전남도·市·加 메이플림재단 MOA

정원 2000명... 내년 9월 개교 예정

전남지역 최초의 외국인학교인 순천 신대지구 메이플림 외국어학교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캐나다 국적의 메이플림 교육재단,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인 순천에코밸리(주)는 16일 메이플림 외국어학교 설립을 위한 5자간 MOA(합의각서)를 최종 체결했다.

지난해 11월24일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꼬박 9개월 만의 성과다.

이번 각서는 메이플림 교육재단 서먼 켈(Sherman Jen) 이사장이 사재 620억원을 투입해 순천에코밸리에서 제공한 학교 부지 9만9000㎡에 정원 2000명의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교는 2012년 9월 예정이며 총 정원은 유치원생 500명과 초·중·고교생 12학년 72학급 1500명 등 2000명이다.

8~10학년까지만 우선 개교한 뒤 전 학년 개교는 2013년 3월 이뤄질 계획이며, 제3차 양도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 입학자격은 외국인 자녀이며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력을 가진 국내 학생도 전체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다. 내국인의 경우 국어, 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모든 교육은 영어로 이뤄지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 정부가 인증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켈 이사장은 1995년 중국 대륙에 첫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21개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를 운영 중이며 순천과 캐나다 밴쿠버에 분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그동안 메이플림에서 배출된 400여

명의 졸업생 중 50% 이상이 세계 상위 200위권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은 1년4개월 동안 전남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협력의 성과”라며 “광양만권을 비롯한 전남도와 경남도 서부권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인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해외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외국인학교는 48개가 운영중이며 광주·전남에서는 1999년 3월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개교한 광주외국인학교가 유일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유엔대표단 여수박람회 방문 잇따라

UN전시관 규모 900㎡ 잠정 결정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UN전시관 규모가 900㎡로 잠정 결정됐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여수박람회 참가를 확정된 UN대표단 박람회 참가 준비 협의차 16일 조직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김원수 UN사무총장 특보, 구상열 UN관 공동대표, 조유원 UN엑스포담당관, 미아터너 UNEP(유엔환경계획) 자문관 등 6명으로 17일까지 여수에 머물면서 조직위측과 UN관 전시면적 등을 협의하게 된다.

사전협의를 통해 양측은 약 900㎡ 규모의 전시면적 배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UN이 2008년에 개최된 스페인 사라고사박람회에 390㎡의 규모로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여수세계박람회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또한 이번 기간중에 UN관 전시계획, 박람회 기간 중 UN의 날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UN전시관을 포함한 박람회장과 홍보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UN은 지난 2월 박람회참가를 공식 통보한 후 반기문 UN사무총장이 UN관 주관기관(UNEP)과 UN관 공동대표를 선정하는 등 여수박람회에 큰 관심을 표시해왔다. 유엔은 그동안 유엔해양법 제정(1982), 지구정상회의(1992), UN오션협약체 발족(2003) 등을 통해 해양과 지구온난화 등을 국제적인 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가 지구가 당면한 해양과 연안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다시 한 번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여수 국회의원인 주승용·김성곤 국회의원과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왼쪽부터)이 16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박람회 관측활동을 위해 입장권을 예매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제공)

여수 국회의원들, 박람회 입장권 관측 활동 나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는 “여수 국회의원 김성곤, 주승용 의원과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 등 3명이 박람회 입장권을 예매하는 등 입장권 관측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조직위 사무실을 방문, 입장권을 구입한 뒤 사무실 근무자들에게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격려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의원 등은 “여수박람회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장권 예매가 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 구매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박람회 홈페이지(www.expo

2012.or.kr)와 인터파크 홈페이지(www.interpark.com)에서 예매 중인 박람회 입장권의 요금은 성인 3만 3000원, 청소년 2만5000원, 경로대상자와 어린이는 각각 1만9000원으로 이달 말까지 구입하면 15%, 연말까지는 10%, 개막 전까지는 5%를 할인해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필리핀 새댁, F1대회 콜센터 영어상담 맡는다

마리벨압신씨 “성공 개척 힘 보탬 것”

다문화이주여성인 F1대회 콜센터에서 영어 상담서비스를 맡게 됐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F1대회조직위원회 숙박교통안내 콜센터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이주여성 마리벨압신(34·영암군 삼호읍)씨가 최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F1조직위는 콜센터(1588-3448)를 개설해 숙박교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문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영어가 가능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외국인 전용 상담원으로 선발해 배치한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마리벨압신씨는 필리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해 최근까지 영암지역 자활센터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왔다.

마리벨압신씨는 “집안 살림과 함께 하는 일이라 힘들겠지만 F1대회 성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외국인에게 콜센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집관 F1대회조직위 운영본부장은 “F1대회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만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회 기간중에 외국인이 투숙하는 F1호텔에 배치 예정인 통역·운영요원도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30여명을 선발해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F1대회조직위는 대회 안내,



입장권 구매 안내, 교통·숙박 안내, 문화행사를 비롯한 주요일정 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콜센터를 9월부터 종합안내센터로 통합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에 첫 ‘저탄소 녹색주택단지’ 추진

동명동 농장다리 주변 2만3330㎡에 ... ‘구도심 재생’ 모델로

광주시가 구도심인 동구 동명동 일대 ‘농장다리 주변’을 녹색도시정책과 도시재생정책을 결합시킨 ‘저탄소 녹색 주거주택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의 고층아파트 중심 민간 재개발이 아닌 원주민 정착,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시스템 도입 등을 목표로 한 ‘공공+민간 개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16일 “도시재생 주무국인 도시디자인국과 녹색환경 주무국인 환경생태국이 광주시 동구 동명동 일대 농장다리 주변 노후불량주택지 2만3330㎡에 대해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창조적인 도시재생기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주는 현

지개발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인 농장다리 일원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주택 189채가 있으며, 이 중 30~40세는 폐가로 방치돼 있다. 광주시는 일단 주민 대부분의 노인이나 영세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택수요조사를 통해 빗물 재활용,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의 시설을 갖춘 저층 연립주택을 짓는 방

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유명 건축가에게 ‘재능 기부’ 형태로 설계를 요청하고, 지역 건설업체에는 ‘봉사’차원의 협조를 부탁해 건축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는 ‘대한민국 최초 에너지자립형 녹색주택단지’라는 점을 강조해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본의 구마모토 아키히데나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부주택단지 등 선진국에서는 유명 건축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 전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박람회 기념우표집·여권 발행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기념하는 우표집과 여권이 발행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는 여수박람회를 기념하는 우표집과 여권을 발행하기위해 사업자를 모

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참여를 하려면 오는 30일 사업설명회에 참가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서와 제안서를 조직위에 제출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박람회 기념 여권은 주화·우표와 함께 박람회를 상징하는 대표적 기념 아이템으로, 지난 1967년 몬트리올 박람회에서 전시관 관람객들의 기념 여권에 해당 전시관 상징 도장(visa stamp)을 찍어준 데서 비롯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자유투어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광주지점 OPEN 기념!
가격은 특가! 품질은 품격! 대박!출!

자유투어 ONLY 인천출발 호화호트(내몽골)
전세기 평균기온18도의 지상낙원 7/25~8/21

실속관광 749,000 원~
품격관광 899,000 원~
골프 1,099,000 원~

캐나다완전일주 10일 9/22,9/29,10/6한정
3,590,000 원

미동부,캐나다완전일주 11일
8,9,10월 매주수요일, 금요일출발
2,590,000 원~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8/27~10/28출발(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79,000 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29,000 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8/22~10/27출발(일,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원~
상해,항주,황산,삼첨산 5일 679,000 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19,000 원~

광양훼리 큐슈 3박 4일 [8/28~12/21출발(일,수)]

8/28,31 9/4,7 99,000 원
9/11,14 **추석기간** 249,000 원
9/18,21,25,28 149,000 원
10/2~12/21 199,000 원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8,9,10월 출발기준-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 원~
서유럽4국(프,스,이,영) 8일 1,990,000 원~
서유럽5국(웅프라우) 10일 2,090,000 원~
서유럽6국(웅프라우) 12일 2,290,000 원~
서,동유럽완전일주 15/16일 2,790,000 원~

홈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 원~
NO-TIP 동유럽 6국 9일 1,890,000 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 원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 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 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 원~

예/약/상/담 350-6226

광천점 267-8587

두암점 652-2974

상무점 574-1300

수완점 227-8255

조선대점 382-5353

진월점 233-2627

첨단점 222-9796

충장점 954-9700

하남점